광주 光산업 영세성 여전

매출 10억 미만 업체 42%…경쟁력 강화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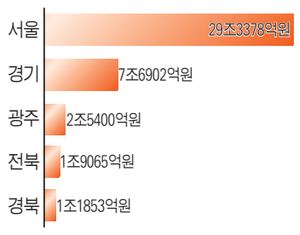
광주지역 광산업 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이들 업체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시의회 조호권 의원이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광산업 업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전체 광산업 업체 360곳 가운데 조사에 응한 291개사를 대상으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연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영세사업체는 122개사로 41.9%를 차지했다.

특히 지역 광산업 업체 전체 매출액 2조5400억원 중 LG이노텍이 32.8%(8340억원), LG이노텍을 포함해 상위 4개 업체가 전체의 54.8%(1조3190억원)를 각각 점유했다.

또 고용인원이 파악된 295개 업체 중 종업원 10명 미만이 51.9%를 차지했고, 종업원 5명 이하인 사업체도 32.2%에 달했다.

■2010년 지역별 광산업 매출액



지역별 광산업 매출액은 서울이 29조3378억원으로 전국 매출액 45조7381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경기도 7조6902억원, 광주 2조5400억원, 전북 1조9065억원, 경북 1조1853억원 순이었다.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서울이 2507억 원으로 가장 높고 광주는 87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광주 LED 관련 업체 131개 중 KS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5개사(8개 제품)에 불과, 경기 95개사, 인천 16개사, 경북 13개사, 부산 9개사 등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인증률이 낮았다. 또한 조달청이 지정하는 조달 우수제품에 광주 LED 제품은 단 1개에 그쳤다.

조호권 의원은 "광주시가 광산업을 집중 육성해온 10년 동안 외형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수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한 실정"이라며 "광주시가 기술개발 지원 등 지역 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

"수험표 가져오면 10% 할인"

광주신세계 구두코너에 '이뮤' 어그부츠 브랜드가 입점해 고객들이 부츠를 살펴보고 있다. 이뮤에서는 오는 13일까지 수험표 지참 고객 1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이번엔 '이탈리아' 공포

디폴트 우려…코스피 94P 급락·환율은 폭등

이탈리아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고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가 1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은 20원 가까이 올랐다. 안전자산에 돈이 몰리면서 국고채 가격은 상승했다. 10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94.28포인트(4.94%) 폭락한 1,813.25로 장을 마쳤다. 이날 지수는 1,860.96으로 출발하고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물량에 장 막판 옵션만기 프로그램 매도물량이 겹치면서 낙폭을 크게 확대했다.

외국인은 5049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과 기관이 '사자'에 나섰으나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프로그램 매매는 동시호가 직전 3200억원 매수우위였다가 1205억원 매도우위로 전환했다. 코스닥지수도 4.05% 급락해 488.77로 마감했다. 닷새 만에 500선을 다시 내줬다.

환율은 16원 넘게 폭등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6.80원 뛴 1,134.2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오후 들어 달러화 매수세가 강화되자 1,137.50원까지 치솟고서 1,130원대 중반으로 조정받았다.

환율 상승은 달러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데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기 때문이다. 안전자산 선호로 국고채 가격은 오르고 있다.

국채선물 12월물은 전날보다 19틱 급등한 104.60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은 5423계약, 은행은 7897계약을 순매수했지만, 증권·선물회사는 7895계약을 순매도했다.

아시아 증시의 주요 주가지수도 일제히 급락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3.35%, 일본 닛케이지수는 2.91% 각각 떨어졌다. 홍콩 항셍H지수는 5.43%,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80% 각각 급락중이다. /연합뉴스

올 재래시장 김장비용 18만원

채소값 하락 10%⬇…대형마트는 23만원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김장비용이 재래시장 기준으로 18만여원(4인가족 기준)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최근 재래시장 15개(5대 도시)와 대형 유통업체 25개(13개 도시)를 대상으로 김장비용을 조사한 결과 재래시장은 17만9959원, 대형 유통업체는 23만3063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0.4%, 1.2% 정도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고춧가루·소금·젓갈류 가격이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배추·깐마늘·대파·쪽파·미나리 등 채소류는 하락했다.

올해 김장비용 하락원인으로는 8월 중순까지 지속된 강우로 생산량이 감소된 건고추와 소금의 가격은 상승했으나,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호조로 출하량이 늘어난 배추·무 등 채소류 가격 하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마을 금고 '사랑 나눔'

청소년 가장에 무료 보험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신종백)는 보험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보험의 보장 혜택을 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사랑나눔 보장공제' 상품을 개발해 무료로 가입시켜 줄 계획이다. 이번 '사랑나눔 보장공제' 상품은 어린이·청소년 주요질환의 입원비 및 수술비, 화상, 골절, 깁스치료비, 식중독 등 각종 질병 및 재해를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어린이청소년 종합보장 보험이다.

가입대상자는 가정위탁보호아동 중 만10세 이하인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 아동으로 현재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가입대상자는 3000여명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1㎞로 확대

광주 남구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를 개정,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에서 1㎞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치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5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고, 500㎡ 미만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조례는 14일부터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12월5일 시행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적십자회원 유공장 명예장'

광주신세계(대표 조창현)는 10일 오후 대한적십자사 창립 106주년을 기념하는 2011년도 지사연차대회에서 그동안 대한적십자사와의 활동에 대해 그 공을 인정받아 '적십자회원 유공장 명예장'을 수상했다.

광주신세계는 그 동안 지역 사회의 동반성장 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환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지역사회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대한적십자사와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조창현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16년간 지역 동반성장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해온것을 잊지 않고 생각해주시는 시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말씀을 드린다. 이번 수상이 앞으로도 더 많은 봉사활동과 지역 사회를 위해 노력하라는 지역민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